

"나는 어제 숙제를 할 것이다"는 왜 어색할까?

이름 _____ 날짜 _____ 맞힌 문제 _____ / 20

쉬움 · 개념 확인 (1~8번)

1 쉬움 문장에서 앞에 오는 말에 어울리는 말이 뒤에 짝지어 오는 것을 이라고 해요.

2 쉬움 "고양이가 생선을 먹는다."에서 서술어는?

① 고양이가

② 생선을

③ 먹는다

④ 고양이

3 쉬움 '어제'와 호응하는 서술어는?

① 읽었다

② 읽을 것이다

③ 읽겠다

④ 읽는다

4 쉬움 '자다'의 높임말은?

① 드시다

② 계시다

③ 말씀하시다

④ 주무시다

5 쉬움 "왜냐하면 길이 막혔기 .

6 쉬움 '결코', '절대로' 뒤에는 '~지 않다'처럼 부정하는 말이 어울린다.

○

×

7 쉬움 높여야 할 분이 주어일 때 '이/가' 대신 쓰는 말을 쓰세요.

답: _____

8 쉬움 "나는 내일 도서관에 갔다."는 호응이 바른 문장이다.

○

×

보통 · 생각해서 풀기 (9~16번)

9 보통 짝을 이루는 말끼리 선으로 이으세요.

- | | | |
|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|
| 1. 만약 | ● | ● 가. ~지 않다 |
| 2. 비록 | ● | ● 나. ~기 때문이다 |
| 3. 결코 | ● | ● 다. ~면/~라면 |
| 4. 왜냐하면 | ● | ● 라. ~지만/~그러라도 |

10 보통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어색한 문장은?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① 내 꿈은 과학자가 되는 것이다. | ② 동생이 밝게 웃는다. |
| ③ 나의 소원은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. | ④ 하늘이 맑다. |

11 보통 다음 문장을 호응이 맞게 고쳐 쓰세요.
"내 꿈은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다."

답: _____

12 보통 다음 문장을 높임 표현에 맞게 고쳐 쓰세요.
"할머니가 저녁을 먹는다."

답: _____

13 보통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?
"비록 오늘은 [] 내일은 꼭 이길 것이다."

- | | |
|----------|-------|
| ① 졌으니까 | ② 졌으면 |
| ③ 졌기 때문에 | ④ 졌지만 |

14 보통 높임 표현이 바르게 쓰인 문장은?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① 제가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. | ② 아버지께서 회사에 가신다. |
| ③ 선생님이 교무실에 있다. | ④ 할아버지가 신문을 읽는다. |

15 보통 "우리는 다음 주에 박물관에 _____." 빈칸에 '가다'를 알맞게 바꾸어 쓰세요.

16 보통 "그는 전혀 피곤하다."는 호응이 바른 문장이다.

- X

도전 · 한 걸음 더 (17~20번)

- 17 도전 다음 문장에서 호응이 어색한 부분을 찾아 까닭을 쓰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.
"지난 방학에 나는 제주도에서 한라산을 오를 것이다."

- 18 도전 '만약 ~라면'을 넣어 호응이 바른 문장을 하나 만드세요.

- 19 도전 다음 글에서 호응이 어색한 문장은?

"① 어제 우리 가족은 공원에 갔다. ② 할머니께서는 벤치에 앉아 쉬셨다. ③ 나는 결코 동생과 닮았다. ④ 우리는 저녁에 함께 김밥을 먹었다."

① ①

② ②

③ ③

④ ④

- 20 도전 다음 일기에서 호응이 어색한 문장 두 개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쓰세요.

"오늘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왔다. 할아버지는 내게 동화책을 선물해 주셨다. 내 바람은 할아버지와 자주 만나고 싶다."

1. **호응** 말과 말이 서로 짝을 이루어 어울리는 것을 호응이라고 해요.
2. ③ '어찌하다'에 해당하는 '먹는다'가 서술어예요.
3. ① 지난 때를 나타내는 '어제'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'읽었다'가 어울려요.
4. ④ '자다'를 높이면 '주무시다'예요.
5. **때문이다** '왜냐하면'은 '~기 때문이다'와 호응해요.
6. O '결코', '절대로', '전혀'는 부정하는 말과 호응해요.
7. **께서** "할머니께서"처럼 '께서'를 써서 높여요.
8. X '내일'에는 '갈 것이다'처럼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 어울려요.
9. **1-다, 2-라, 3-가, 4-나** 부사어와 서술어의 대표적인 호응 짝이에요.
10. ③ '소원은 ~ 키우고 싶다'는 어색해요. '소원은 ~ 키우는 것이다'로 고쳐야 해요.
11. **내 꿈은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다.** 주어 '꿈은'에 맞게 '~것이다'로 고쳐요. "나는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다."도 정답이에요.
12. **할머니께서 진지를 드신다.** '께서', '진지', '드시다(잡수시다)'로 높여요. "할머니께서 저녁을 드신다."도 정답이에요.
13. ④ '비록'은 '~지만'과 호응해요.
14. ② '께서'와 '-시-'를 써서 아버지를 바르게 높였어요. 1번은 나를 높여서 틀렸어요.
15. **갈 것이다** '다음 주'에는 미래를 나타내는 '갈 것이다(가겠다)'가 어울려요.
16. X '전혀'는 부정하는 말과 어울리므로 "그는 전혀 피곤하지 않다."로 써야 해요.
17. **까닭: '지난 방학'은 지난 때를 나타내는데 '오를 것이다'는 앞으로의 일을 나타내므로 어울리지 않는다. / 고친 문장: 지난 방학에 나는 제주도에서 한라산에 올랐다.**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을 맞추면 돼요.
18. **만약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면 구름 위에서 낮잠을 잘 것이다.** '만약' 뒤에 '~면/~라면'이 오도록 쓰면 정답이에요.
19. ③ '결코'는 부정하는 말과 어울리므로 "나는 결코 동생과 다투지 않았다."로 고쳐야 해요.
20. ① **오늘 할아버지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.** ② **내 바람은 할아버지와 자주 만나는 것이다. (또는 나는 할아버지와 자주 만나고 싶다.)** 첫 문장은 높임 표현, 마지막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았어요.